

별과 프로그래밍이 제 삶을 좌우했어요

고교 시절 좋아하던 여학생이 별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 책을 찾아보며 별자리 공부를 했다. 책을 보고 북두칠성부터 헤라클레스자리, 백조자리 등 실제 별들을 맞춰나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별자리를 모두 암기할 정도였다. 국내 최초의 별과 우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이자, 18년 역사를 자랑하는 천문 비영리민간단체인 ‘천문노트’의 설립자 지용호(40) 씨의 이야기다.

지용호 씨는 1997년 천문우주학과로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별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그해에는 우연찮게도 20세기 최대 혜성 ‘헤일밥 혜성’이 지구 방문을 앞두고 있었기에 용호 씨는 혜성 사진을 찍기 위해 밤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눈으로만 봐도 크고 화려한 혜성을 사진에 담으니 너무나도 멋졌다.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천문학 공부를 시작하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매일 수학, 물리학과 씨름을 해야 했죠. 고교 때 지구과학과 화학은 좋아했지만, 물리와 수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별 보는 것만 좋아했지 실제 천문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물리학이라면 고개를 젖던 용호 씨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당시 새로 부임한 물리학과 교수님으로부터 과학기술용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포트란(FORTRAN)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포트란을 배우면서 천문학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를 계기로 천문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고 물리학과 수학도 재미있어졌죠. 그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용호 씨는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천문학 공부에 매진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여유 시간에는 천문학 프로그래밍에 관한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천문노트(astronote.org)’의 탄생 역시 군 시절 그의 천문 프로그램을 검색해 연락해온 한 대학생과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한 친구가 제 블로그로 연락을 해왔고 전역 후 그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만든 사이트가 바로 천문노트입니다. 당시 별자리나 천문학에 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국내 유일무이한 사이트였죠.”

복학 후 진로를 생각해보니 별에 대한 열정은 수익성이 크지 않았다. 용호 씨는 결국 천문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했고 다시 수능시험을 본 후 제어시스템공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천문노트 활동은 계속 이어가며 천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지용호 씨는 대학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그런 용호 씨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2000년대 초중반 ○○월드로 대표되는 SNS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별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SNS 서비스를 만들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1년 만에 용호 씨와 팀원들은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별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SNS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다.

용호 씨는 지나고 보니 ‘프로그래밍’과 ‘별자리’ 두 가지가 자신의 삶을 좌우했다고 말한다.

“지금은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별을 보러 다니지는 못하지만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커넥팅 더 닷츠(Connecting the Dots)’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제가 해온 모든 일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 20호)

Q 자신의 진로에 학교 교육이 도움 되지 않는다는 아이, 어쩌죠?

일반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요리사가 되겠다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야간자율학습이 있고,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요리 학원에 다니겠답니다. 일찍 꿈을 정했다면 특성화고라도 보냈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러니 너무 걱정됩니다.

A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대안을 찾아보세요

자녀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다행이면서도 그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사실 자녀분처럼 자신의 목표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내용이 차이가 있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희망진로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도 있고, 희망진로에 맞게 고등학교를 선택하고서도 중도에 진로 방향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진로 목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진로는 한 번 정한대로 변함없이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진작 목표를 정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녀가 진로를 개발해나가는 과정을 담당하게 지켜봐주십시오.

그럼에도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위탁 교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직업위탁교육이란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1년 과정으로 직업훈련기관 등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도 직업훈련기관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2학년 2학기 말에 모집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어떤 직업훈련기관으로 학생들을 위탁하는지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진학상담선생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기관에 학생 위탁교육을 의뢰할 때는 해당 기관의 훈련생 관리, 업무 협약, 행정 처리 문제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던 기존 훈련기관에 학생들을 위탁하므로 해당 훈련기관들의 홈페이지나 홍보 리플릿 등을 참고해 자녀가 원하는 조리 관련 과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위탁교육 기관에 관련 교육과정이 없다면 담임선생님, 직업위탁반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위탁교육기관을 탐색하고 위탁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학교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대안을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드림소식

학부모용 오디오 진로정보 「진로레시피」

사교육의 도움 없이 자녀를 키워내고 있는 '이지연 대표'가 알려주는 '엄마표 사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방송기간	- 04월 11일 ~ 12월 31일 ※ 매주 화, 목(주 2회) 새로운 정보가 올라옵니다.
방송정보	- 출연자: 이지연 대표(아트플러스) 52회: 엄마표 사교육 53회: 자신을 잘 모르는 청소년을 위하여
청취방법	PC로 듣는 방법: -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교육자료' < '드림레터' < '진로레시피' 클릭 모바일로 듣는 방법: - '맘에썩 진로' 앱 다운로드 < '진로레시피' - 'e-진로채널' 앱 다운로드 < '진로레시피' ※ 팟빵, 유튜브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해보세요.

「통번역가」 관련 진로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진로·진학(학습)·직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진로고민에 대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대상	초·중·고등학생
진로고민 등록기간	2017.10.1. ~ 10.31.
이용 방법	① 커리어넷의 진로솔루션 접속 -pc: '커리어넷(http://career.go.kr/)' 접속 < '커리어넷 진로상담' < '진로솔루션' -모바일:  ② 상담주제 확인 및 관련 진로고민 등록 ③ '진로솔루션' < '전문가 답변 확인하기'에서 솔루션 페이지 열람 ※ 로그인 없이 참여 가능